

평생 교육체제 마련… 30개 대학에 7.8억 사업비 지원

(1곳 당)

성인학습자 친화 교육체제 구축
아간 수업 등 가능한 학사제도
다학기제·학습경험인정제 등 도입

가톨릭대와 동국대 등 30개 대학이 직장인 등 성인학습자 친화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기업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확대하고 야간·주말 수업 등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에 참여할 대학 30개교를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 전환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						/교육부
권역	유형	대학	권역	유형	대학	
수도권 (9개교)	일반대	가톨릭대	충청권 (4개교)	일반대	청운대	
		동국대			한국교통대	
		동덕여대			한밭대	
		명지대			호서대	
	전문대	서울과기대	동남권 (6개교)	일반대	동명대	
		아주대			동서대	
		인하대			부경대	
		서정대			영산대	
강원·대경권 (6개교)	일반대	인천재능대	호남·제주권 (5개교)	전문대	경남도립거창대	
		가톨릭관동대			동의과학대	
		경일대			순천대	
		대구한의대			전주대	
	전문대	상지대			제주대	
		한라대			군장대	
		성운대			목포과학대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따라 대학

이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도입하는 등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체제에

서 성인 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능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제외한 서류나 면접 심사로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고, 야간·주말 수업,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 학습경험인정제 등을 도입하거나 재학연한 상한을 폐지하는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기존 사업 참여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달 신규 대학 선정 평가를 실시해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 지원대학을 선정했다. 각 대학에는 평균 7억8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학들은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습자장학금,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흥보비 등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들 대학 중 일반대 23개교는 3269

명, 전문대 7개교는 891명 등 2022학년도에 총 4160명의 신입생을 재직자가 지원하는 전형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가톨릭대(글로벌미래경영학과 등 60명) ▲동국대(융합보안학과 등 152명) ▲동덕여대(세무회계학과 등 88명) ▲명지대(정의 융합인재학부 등 191명) ▲서울과기대(융합기계공학과 등 240명) ▲아주대(메카트로닉스공학 등 106명) ▲인하대(메카트로닉스공학 등 198명)가 성인 학습자를 뽑는다. 수도권 전문대 중에서는 ▲서정대(사회복지상담과 등 175명) ▲인천재능대(외식조리창업과 등 186명)가 각각 재직자 등 성인 신입생 선발한다.

대학별 재직자 선발 방식과 인원은 상이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전형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과기대, GS동해전력과 산학협력 협약

미래에너지융합학과와 R&D 협력
에너지산업 선도 공학 인력 육성
교육·연구인력 등 상호 교류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24일 GS동해전력과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2022학년도부터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하고, 첨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 소양과 공학적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외 미래 유망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융합형 공학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저장장치 등 첨단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한다.



박현철 GS동해전력 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와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력협약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첨단 에너지 기술, 정책 분야 R&D 협력 활성화 ▲교육, 연구인력 등 상호 교류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재학생에 대한 인턴십 및 산학 프로그램 등 상호 밀접한 교육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첨단분야를 중

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고 신기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의융합대학을 신설했다. 정부의 미래인재 양성정책에 따라 2021년 신설 한 인공지능응용학과와 2022년 신설 예정인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등으로 이루어진 첨단학문 분야 중심의 단과대학이다. /이현진 기자 lhj@

건국대, AI챗봇 국제경진대회 1위

건국대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학생팀
ACL 주최 'DialDoc2021' 참가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학과 학생팀으로 구성된 'KU_NLP팀'이 최근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경진대회인 'DialDoc2021'에서 '텍스트 생성'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국제경진대회는 자연어 처리 분야 최고 국제학술단체인 ACL이 개최했다. 사용자의 자연어 질문을 이해한 후 대량의 문서에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적절한 응답을 생성하는 AI챗봇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다.

올해 2월 데이터 공개 이후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번 대회는 문서로부터 적절한 지식을 찾는 '지식 식별' 부문과 찾아낸 지식으로부터 응답을 생



김보은
석사과정

이도행
석사과정

이예진
학사과정

성하는 '텍스트 생성'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대회에는 국내외 유수 대학 및 기업의 20여 팀이 참여했다.

건국대에서는 대학원생 김보은, 이도행(이상 인공지능학과)과 학부생 이예진(응용통계 4), 강원대 박사과정 김시형으로 팀을 꾸려 대회에 참가했다.

KU-NLP팀은 '텍스트 생성' 부문 1위, '지식 식별' 부문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사)한국관광연구학회가 오는 7월 2일 '한국의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의 지원체계방안'이라는 주제로 경희사이버네오르네상스관에서 '2021년 춘계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민국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이 어떠한 지원 역할을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자들을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체적인 경희대 정남호 교수와 '한국의 스마트관광 실현을 위한 대학의 커리큘럼 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한국관광연구학회 내일 정기 학술대회 개최

융합형 인재 육성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이 내달 5일까지 2021년 후기 신입생 3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3차 모집은 관광경영학과(컨벤션·이벤트경영/여행·항공경영/골프·리조트경영 전공)와 호텔·외식경영학과(식생활문화산업/호텔경영/외식경영/소상공인창업 전공) 2개 학과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대학원 입학 전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세종대 관광대학원은 지난 2019년 6월 아시아 최고 조리 교육기관을 목표로 세종컬리너리스쿨(SCIA)을 개원했다. 또한 대학원과 연계운영 및 융합 전공 개설, 실무와 현장적응 교육 강화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세종대 호텔관광외식 경영학부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의 '2021 QS 세계대학평가 분야별 순위'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이번 2021 후기 신입생 3차 모집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 관광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장훈 호서대 부총장이 30일 유해성(GLP) 분야 인프라 확대를 위한 양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호서대

호서대, 韓환경공단과 GLP 분야 협약

유해성 시험 기술지원 등 공유·연계

호서대학교는 한국환경공단과 유해성 시험(GLP) 분야 인프라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호서대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이장훈 호서대 부총장과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해성 시험

분야 인프라 확대를 위한 기술협력, 유해성 시험 기술지원 등에 공유·연계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유해성 시험 분야 인프라 확대 위한 상호 지원 및 협력 ▲화학물질 유해성분야 연구과제 참여 및 개발 협력 ▲전문성 제고 위한 정보 및 기술교류 및 공동워크숍 개최 ▲연구 및 실험시설, 강당 등 인프라 공동 활용 ▲척추동물체체험법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이현진 기자